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녀와서

-캄보디아 편-

서부지점 안 재 준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 유적 여행을 하고나서 그 웅장한 유적에 대한 경외와 캄보디아의 역사에서 사라진 미지의 앙코르제국에 대한 아쉬움(당시 식민지였던 태국에 의해 철저히 말살됐다고 한다)이 남는 여행이었지만 다시 한 번 한국 이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이 후기를 통해 캄보디아(특히 앙코르)를 여행계획을 하는 이에게 다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기원한다.

06.11.3(금) 16:00

인천공항에서 여행사 미팅후 확정여행일정표와 비행기표를 받고 함께 할 여행인원이 우리 팀 7명 포함에서 총 16명이란다. 출국수속을 마치고 여객터미널로 들어가서 면세점에서 간단히 쇼핑하고 출국Gate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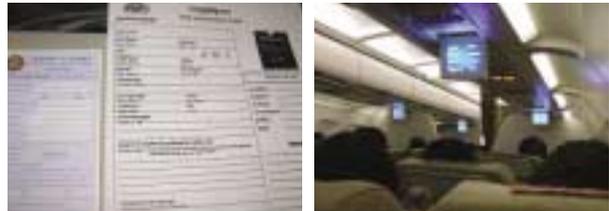


타고 갈 비행기는 OZ 737로 국제선 임에도 소형비행기이다. 그 이유는 도착지인 캄보디아 씨엠티프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앙코르 유적지가 비행기 이착륙에 따

른 진동으로 피해를 입을 수 가 있어 국제공항임에도 소형비행기가 취항한다고 한다.

06.11.3(금) 18:00 - 23:50 (비행시간 5:30 소요)

이륙후 기내식으로 쇠고기덮밥이 제공되었는데 맛은 별로였다. 별도로 제공되는 와인 두 잔을 마시고 잠을 청하려 했는데 뒤에서 아줌마들의 끝없는 대화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_-;;



캄보디아 세관/출입국신고서와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내영화를 보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니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고 시계를 현지시간(한국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했다.

06.11.3(금) 21:50 캄보디아 입국과 가이드 미팅

이럴수가!!! 공항에 입국수속을 위해 여행팀 16명이 처음으로 모였는데 비행기 뒤에서 그렇게 나의 잠을 방해하신 분들이었다. -_-;; 일행 중 한 분이 기내에



▲ 앙코르 유적지에 관광객이 몰리는 바람에 2년전에 새로 지었는데 국내 지방공항보다 규모가 작지만 건축미가 있는 씨엠립 국제공항

서 뒤척이는 모습을 봤다면서 나보고 미안하단다. 이분들의 유쾌한 수다(?)덕에 여행 재미가 더해졌다.

입국장에 도착하니 여행사 티켓을 여러장 들고 팀별로 모이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팀별로 여권, 비자비, 급행료와 비자신청서를 걷고 입국심사대를 그냥 나가라고 하길래 가이드인줄 알았는데 공항직원이란다. 가이드는 공항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단다.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탔다.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중형버스였는데 다행히 에어컨은 잘 나왔다. 캄보디아의 전력사정이 열악하여(태국에서 수입해서 전기료가 무척 비싸단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도중에 불이 켜진 집을 거의 보지 못했고, 호롱불 비슷한 걸 사용한다고 한다.



06.11.3(금) 숙박



▲ 2박 3일을 머물렀던 호텔 전경과 모기약

06.11.4(토) 앙코르 유적 여행시작

아침을 호텔에서 먹는데 솔직히 먹을게 별로 없었지만 여행일정을 위해서 열심히 먹었다. 쌀국수, 프랑스 영향으로 나온 바게트빵, 베이컨 대신 나온 바짝 구운 삼겹살, 쌀죽 등등.

여행일정은 크메르 왕국의 최대 유적지인 앙코르톰 남문, 바이온 사원, 바푸온 사원, 코끼리테라스, 구왕궁, 피미니카스신전, 문동왕테라스 관광과 중식후 세계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서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의 하나인 앙코르 왓 관광이다.



▲유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른 잡화점인데 읍내 상점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앙코르 관광을 위한 1일권 티켓으로 \$20이다. 유적지가 넓은 관계로 주요 유적지에서 수시로 확인한다.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잘 관리해야한다.

현지 물가(보통 월급이 \$40~50)를 감안하면 입장료가 너무 비싸나 앙코르유적복원에 사용된다고 하니, 수긍하자.

유적지 관광에 별도의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영어가이드는 1일 \$20, 한국가이드는 1일 \$100이란다.



▲앙코르 톨 남문

▲남문 상단의 아바로키테스바라 상

앙코르톨 남문으로 들어가는 다리 중심으로 좌측(樑)에는 54명의 선신이, 우측(礎)에는 동수의 악신들이 배수키(Vasuki, 뱀인)를 껴안고 다리의 난간을 이루는데, 이는 유해교반(泉海硯拜)의 한 장면이란다.

남문(높이23m) 위에는 4개의 얼굴을 가진 아바로키테스바라(Avalokitesvara)가 올려져 있는데 메루산에서 4방향을 지배하는 신이다. 불교에서는 관음보살이라고 하고, 관음보살과 동일시하기 원했던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로 4면의 표정이 동일하다.

이 남문을 지나 숲길을 통해 1.5km정도 지나면 거대한 사원을 만나는데 이것이 바로 앙코르 왓과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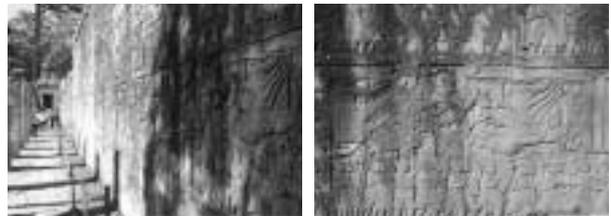


▲바이온사원 전경

▲바이온사원 구조

어 앙코르 유적의 백미로 꼽히는 바이온사원이다.

앙코르 톨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 사원은 우주의 중앙에 있는 메루산을 상징하며, 사원의 벽면의 부조를 통해 자야르바르만 7세의 업적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원에는 54개의 탑이 있으며 각 탑에는 4면의 아바로키테스바라(자야르바르만 7세의 얼굴)가 조각되어 있다. 54개 탑은 자야바르만 7세의 의해 다스리던 54개 지방을 의미하고 4면의 얼굴은 그 모든 지역을 감시한다는 의미도 있단다.



▲부조는 상중하 3단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 사원의 벽면에는 약 1,200m에 달하는 조각이 둘러져 있는데,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원래는 다양한 색깔로 색칠되어져 있었으나 조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탁본작업을 많이 하여 현재는 회색빛으로 변해있단다)에 경탄이 저절로 나오며, 종교의 힘과 막강한 왕권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힌두교적인 생활 이란게 자신이 맡은 일을 벗어날 수 없어서 농사꾼은 열심히 농사를, 군인은 열심히 싸워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단다. 고로, 이 사원을 세울 때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는 가이드 설명) 내부 회랑과 이를 둘러싼 외부 회랑 벽면에는 크메르인의 일상생활과 전쟁에 대해 주로 새겨져 있었다.

외부 회랑 부조는,

동문 남쪽 : 자야바르만 7세를 위시한 군사들이 행진하는 모습

남쪽 회랑 : 베트남의 참(Cham)족과의 해전모습과 뜬

레삽 호수 주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표현
 서쪽 벽면 : 전사들과 장수들의 행진, 호랑이에게 쫓겨
 나무에 올라간 브라만들의 모습
 북쪽 벽면 : 곡예단 모습, 크메르군이 참족에게 패하는
 모습
 동문 북쪽 : 참족과 크메르군의 전투장면이 계속되는
 데 결국에는 참족이 패한다.



▲복구중인 외부 회랑 벽면

내부 회랑 부조는 외부회랑처럼 연속적인 공간은 아
 니고 주로 힌두교의 신화와 전설을 표현하고 있으나
 일부는 훼손이 심해 잘 보이지 않았다.



▲사원 내부



▲압사라

다음호에 계속 ◉

토막
상식

경고와 퇴장 - 레드카드 · 옐로카드는 언제부터 썼을까?

축구 경기에서 옐로카드는 경고를, 레드카드는 퇴장을 뜻하는데, 이 카드는 교통 신호등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졌다. 신호등의 노란 불이 '주의'를, 빨간 불이 '정지'를 의미하는 것에서 '경고'와 '퇴장'을 생각해 낸 것이다.

이 카드를 처음 고안해 낸 사람은 영국의 축구 심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케네스 조지 아스톤이다.

그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유명한 칠레 - 이탈리아 전의 주심을 봤다.

이 경기는 이탈리아의 한 기자가 "칠레 여자들의 미모와 도덕성은 형편없다."는 기사를 쓴 이후 양국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산티아고의 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는데, 이 경기에서 아스톤 심판은 이탈리아 선수 두 명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 수많은 몸싸움을 뜯어 말려야 했다.

1966년에도 그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시 FIFA 심판위원회 위원이었던 아스톤은 잉글랜드 - 아르헨티나의 8강전 때 곤욕을 치렀다.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주장 라틴은 거친 플레이로 퇴장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심판이 잉글랜드의 찰튼 형제에게 돈을 걸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팀을 봐줬다."는 음해성 기사가 나오면서 엄청난 파문에 휩싸였다.

고민에 빠진 아스톤은 영국의 켄싱턴하이 거리를 지나다가 무심코 점멸하는 교통 신호등의 노란 불과 빨간 불을 보다가 손뼉을 쳤다. 축구 경기에서 판정 시비를 잠재울 묘안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대회 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

<Tip : 여행준비>



1. 해외여행의 시작은 장보기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기후, 풍토, 음식 등이 다른 외국 여행 중에 체력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즐거운 여행이 아닌 고행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늘 해외에 나가기 전에 입맛을 돋울 수 있는 한국음식(특히 김치, 라면)과 간식거리를 준비하는 게 습관 아닌 습관이 됐는데 이것도 직업병(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인가 보다.

동남아 음식들이 향신료 냄새가 강하므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의 준비물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 ① 김치 : 여행용으로 김치가 소량으로 포장판매되고 있음. 볶은김치도 포장판매됨.
- ② 고추장 : 여행용 고추장이 여러종류로 다양하고, 튜브형도 있음.
- ③ 김 : 소량 포장
- ④ 컵라면 : 소형으로 준비, 보통 호텔에 커피포트가 준비되어 있음.
- ⑤ 기타 간식거리 : 육포, 말린과일, 껌, 양갱, 초코바 등 (양코르 유적군은 대부분 걸어서다니므로 간식 필요), 생수 (현지 생수는 국적불분명하고 비싸므로-약 \$1-미리 준비해가면 좋다)
- ⑥ 커피믹스(식후에 인기가 엄청 좋았다.)

2. 인천공항 면세점 이용하기

면세품을 살 계획이면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외국의 공항면세점은 짝퉁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 종류가 인천공항처럼 다양하지가 못하다. 선물용품도 미리 백화점판매가를 확인하여 구매하는 센스도 필요.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공항에서 인도해 준다.

3. 기내식

기내식은 승객 수에 맞춰서 준비되기 때문에 만석이 안 된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추가 요청하면 가져다준다.



4. 캄보디아 비자받기

캄보디아는 현지 공항에서 입국수속과 동시에 비자발급이 이루어진다. 여권사진1매와 비자발급비 \$20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급행료 \$5을 내면 공항직원이 입국수속 없이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비자발급해서 가이드를 통해 돌려준다.

급행료를 안내고 입국수속대에 여권, 사진, 비자비, 신청서를 내고 심사받아도 10분 이내에 처리된다.(한국 관광객들이 대부분 급행료를 내고 처리하는 바람에 정작 심사대는 한가했다)

- ➔ 현지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이 느리다.
- ➔ 1인당 GNP \$270(2003년 기준), 수도 : 프놈펜
인구 약 900만 정도

5. 앙코르 유적 이해

앙코르 유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지식을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 앙코르왕국이 힌두교의 바탕위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힌두교 유적들이다. 그러므로 힌두교의 신화(그리스·로마 신화보다 더 복잡하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면 보다 더 재미있는 앙코르 유적탐방이 되고 이 도시를 건설한 왕국에 대한 경외가 넘칠 것이다.